

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창원지역 기업 인식 조사

2022. 3

창원상공회의소

I

조사개요

1. 조사목적

- 신정부 출범과 지방선거를 맞아 창원지역 경제상황을 바라보는 지역 기업의 인식조사를 통해,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수립에 참고자료로 제공하기 위함.

2. 조사방법 및 기간

- 조사방법 : 온라인 설문조사
- 조사기간 : 2022. 3. 7 ~ 3. 23(휴일제외 10일 간)
- 분석대상 : 122개 응답업체

(단위 : 매, %)

	규모별		수출, 내수 비중	
	대·중견기업	중소기업	수출위주 기업 (수출 50% 이상)	내수위주 기업 (수출 50% 미만)
매수	41	81	28	94
비중	33.6	66.4	23.0	77.0

3. 조사내용

- 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평가와 과제
- 창원지역 산업 여건에 대한 인식 및 평가

II

요약

- **수도권과의 격차 더욱 커진 가운데, 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 만족도도 낮아...**
창원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과거에 비해 지역과 수도권과의 격차가 어떠한지 묻는 질문에 응답업체(n=122)의 38.5%가 '더욱 확대되었다'고 답한 반면, '감소했다'는 응답률은 17.2%에 그쳤음.
정부가 추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필요도(5점 만점)에 있어 '지역전략산업 육성'(3.91), '지역 R&D기반 구축'(3.84), '지방 기업이전 및 리쇼어링'(3.71)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지만, 실제 만족도에 있어서는 '지역전략산업 육성'(2.87), '지역 R&D기반 구축'(2.88), '지방 기업이전 및 리쇼어링'(2.68)로 기준치를 밑도는 수준으로 조사되었음.
필요도와 만족도 간의 차이가 가장 큰 부문은 '지역전략산업 육성'(1.04), '지방 기업이전 및 리쇼어링'(1.03)이었음.
지역균형발전에 있어 차기정부가 우선시해야 할 정책에도 '지역전략산업 육성'(28.3%), '비수도권에 대한 대폭적인 세제감면'(21.1%)을 가장 많이 꼽았음. 특히 이러한 응답은 중소기업에서 높은 응답비중을 보였음.
- **창원 산업여건 악화, 인재확보가 가장 필요하지만 만족도는 낮은 수준**
대·중견기업은 '기술 및 R&D인력', 중소기업은 '기능인력' 수급 꼽아...
창원의 산업여건이 어떠한지 묻는 질문에 응답업체의 50.8%가 '과거에는 강점을 가지고 있었으나, 현재는 계속해서 악화하고 있다'고 답했음. 반면 '산업도시로의 위상이 앞으로도 강화될 것이다'고 답한 비중은 9.8%에 불과했음.
이를 타계하기 위한 정책 필요도(5점 만점)가 '기능인력 수급'과 '기술 및 R&D인력 수급' 등 인재 확보와 '미래산업 등 신규비즈니스 창출' 부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음. 하지만 현 수준에서의 만족도는 기준치(3.0)을 한참 밑도는 수준을 보였음. 특히 대·중견기업의 경우 '기술 및 R&D 인력 수급'(4.12)에 매우 높은 필요도를 보였고,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'기능인력 수급'(4.10)에 가장 높은 필요도를 보였음. 하지만 만족도에 있어서는 각각 '2.76', '2.53'으로 조사되어, 필요도와 만족도 사이에 큰 괴리감을 보였음.

- 응답업체의 48.5%, ‘수도권과의 격차 과거보다 더 커졌다’
 -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‘지역전략산업 육성’, ‘비수도권 세제감면’ 필요
 - 지역과 수도권과의 격차, 과거보다 ‘크게 커졌다’ 13.9%, ‘다소 커졌다’ 24.6%
‘다소 감소했다’ 15.6%, ‘크게 감소했다’ 1.6%
 -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‘지역전략산업 육성’ 28.3%, ‘비수도권 세제감면’ 21.1%, ‘지방인재 육성’ 20.4%, ‘지역 R&D지원 확대’ 18.8% 순

- 지역균형발전 관련 정부 정책, 필요하지만 만족도는 낮아...
 - 지역균형발전에 ‘지역 전략산업 육성’(3.95), ‘지역 R&D기반 구축’(3.84), ‘기업 지방이전 및 리쇼어링’(3.71), ‘지역 산업단지 조성’(3.47) 필요하지만, 만족도는 모두 기준치(3.0) 하회
 - 필요도와 만족도, ‘지역 전략산업 육성’(1.04), ‘기업지방이전 및 리쇼어링’(1.03), ‘지역 R&D기반 구축’(0.97) 부문에서 가장 큰 차이

- 응답업체 50.8%, ‘창원 산업여건, 계속 악화하고 있다’
 - ‘산업단지 등 공장여건’ 제외한 전 부문에서 만족도 낮아...
 - 창원의 산업여건, ‘과거에는 강점을 가지고 있었으나, 현재는 계속 악화하고 있다’ 50.8%, ‘수도권을 제외하면 좋은 편이다’ 39.3%.... ‘산업도시로의 위상이 앞으로도 더욱 강화할 것이다’는 9.8%에 그쳐
 - 산업여건 부문별 필요도(5점 만점), ‘기능인력 수급’(4.03), ‘기술 및 R&D인력 수급’(3.93), ‘미래산업 등 신규비즈니스 창출’(3.93), ‘산·학·연 협력’(3.80), ‘금융·법무·회계 지원 기능’(3.80), ‘산업단지 등 공장입지’(3.66), ‘수도권과의 교통 접근성’(3.64) 순으로 높은 수준
 - 만족도는 ‘산업단지 등 공장입지’(3.30)를 제외한 전부문에서 기준치(3.0) 하회
 - 필요도와 만족도 차이, ‘기능인력 수급’(1.34), ‘기술 및 R&D인력 수급’(1.30), ‘미래산업 등 신규비즈니스 창출’(1.22), ‘금융·법무·회계 지원 기능’(1.00) 부문에서 가장 큰 차이
 - 대·중견기업은 ‘기술 및 R&D인력 수급’, 중소기업은 ‘기능인력 수급’ 부문에 가장 높은 필요도 나타냈지만, 만족도는 모두 낮은 수준 보여

Ⅲ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창원지역 기업 인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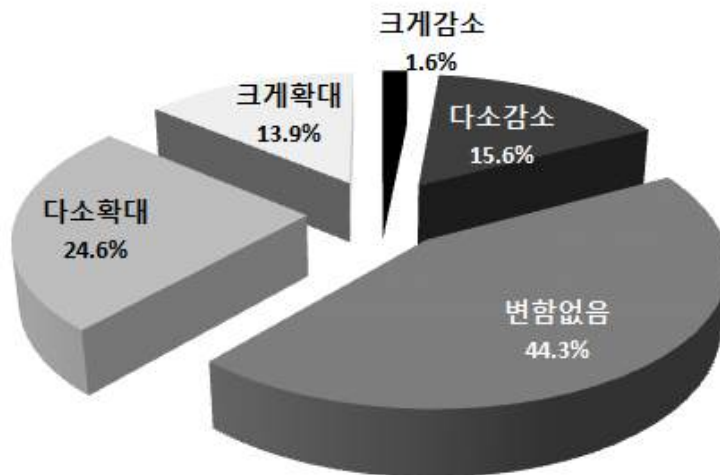
1. 수도권과의 체감 격차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 평가

○ 과거와 비교해 기업운영의 측면에서 지역과 수도권과의 여건 차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24.6%는 ‘수도권과의 격차가 다소 확대되었다’, 13.9%는 ‘크게 확대 되었다’고 답해, 응답업체의 38.5%가 과거에 비해 수도권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고 답했음.

44.3%는 ‘변함없다’로 답한데 이어, ‘다소 감소했다’로 답한 비중은 15.6%, ‘크게 감소했다’로 답한 비중은 1.6%로 응답해, 과거와 비교해 수도권과의 격차가 감소했다고 답한 비중은 17.2%에 그쳤음.

과거와 비교해 지역과 수도권과의 기업여건 격차 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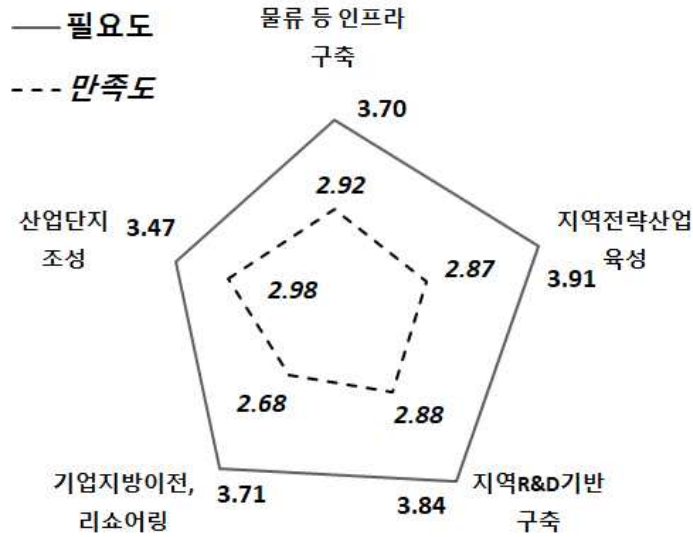
(n=122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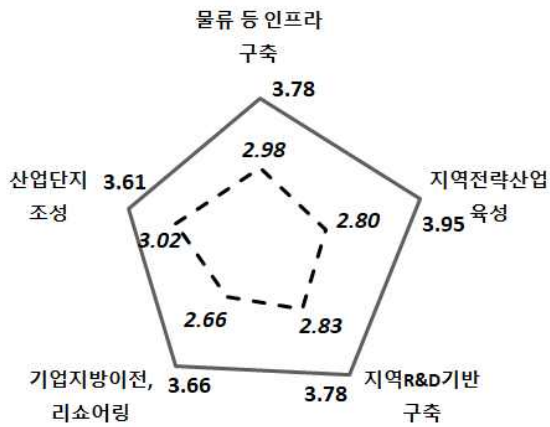
○ 물류 등 인프라 구축, 지역전략산업 육성, 지역 R&D기반 구축, 기업지방이전 및 리쇼어링, 지역 산업단지 조성 등 산업과 관련하여 정부가 추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필요도와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, 전반적으로 정책의 필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음.

정부 추진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필요도와 만족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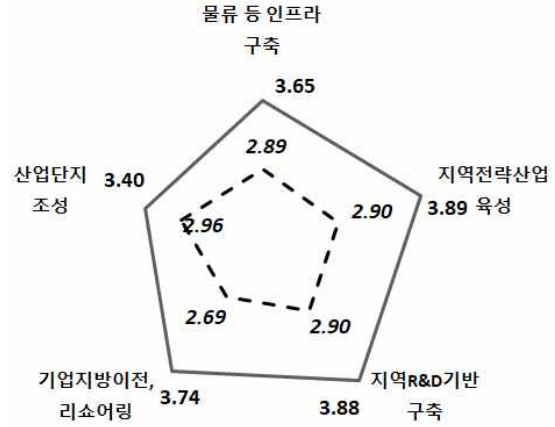
(n=122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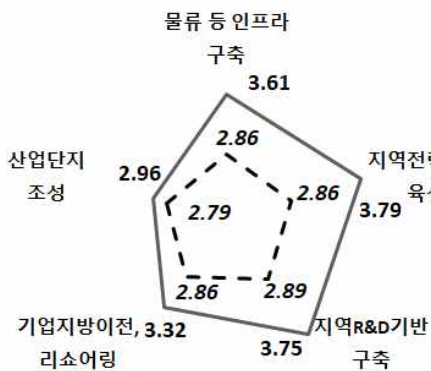
<대·중견기업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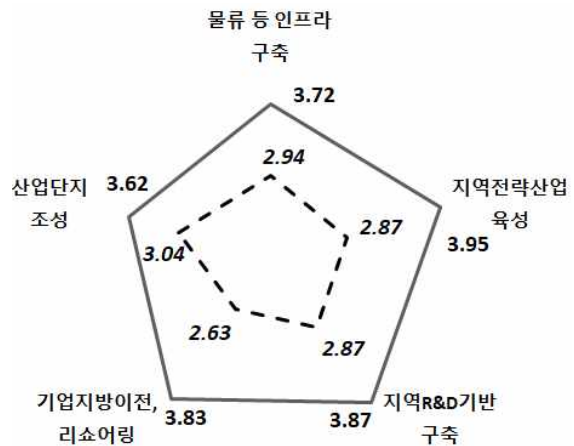
<중소기업>



<수출위주기업>



<내수위주기업>



- 조사결과, 필요도의 평균(n=122, 5점 만점)은 ‘지역 전략산업 육성’(3.95), ‘지역 R&D기반 구축’(3.84), ‘기업 지방이전 및 리쇼어링’(3.71), ‘지역 산업단지 조성’(3.47)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. 3점 이상은 필요도 항목에 ‘필요하다’와 ‘매우 필요하다’로 응답한 비중이 높음을 의미함.

반면 이에 따른 만족도는 ‘지역 산업단지 조성’(2.98), ‘물류 등 인프라 구축’(2.92), ‘지역 R&D기반 구축’(2.88), ‘지역 전략산업 육성’(2.87), ‘기업 지방이전 및 리쇼어링’(2.68) 순으로 조사되었음. 모든 항목에서 3점 이하로 조사되어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낮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음.

필요도와 만족도 간의 차이를 보면, ‘지역 전략산업 육성’(1.04)과 ‘기업 지방이전 및 리쇼어링’(1.03), ‘지역 R&D기반 구축’(0.97) 부문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여 정책 기대감과 정책체감과의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. 이는 기존 산업관련 지역균형발전 정책들이 실제 비수도권 기업이 실효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의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함.

- 필요도에 있어 대·중견기업과 내수위주기업에서 ‘지역 전략산업 육성’ 부문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크게 느꼈고, ‘지역 R&D기반 구축’ 부문에서 중소기업과 내수위주기업이, ‘물류 등 인프라 구축’ 부문은 대·중견기업과 내수위주기업이, ‘기업 지방이전 및 리쇼어링’ 부문은 중소기업과 내수기업이, ‘산업단지 조성’ 부문은 대·중견기업과 내수위주기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냈음.

- 개별 정책의 만족도에 있어서는 ‘산업단지 조성’ 부문에서 대·중견기업과 내수위주기업이 각각 ‘3.02’, ‘3.04’로 조사되어, 유일하게 기준치(3.0) 이상을 보였음.

2. 차기정부가 우선해야할 지역균형발전 정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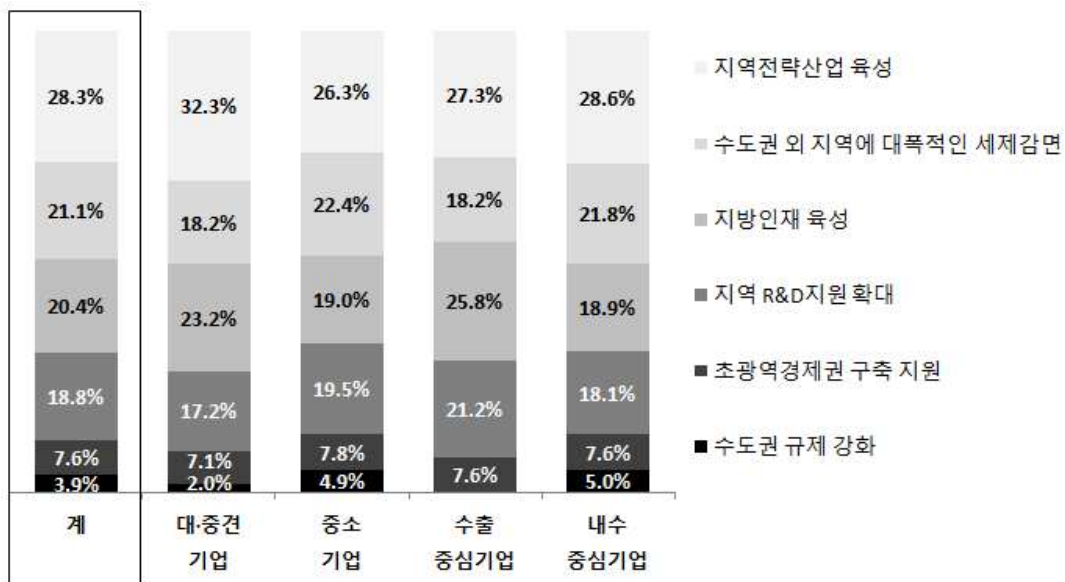
○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차기정부가 우선해야할 사항을 묻는 질문에 ‘지역전략산업 육성’을 응답업체의 28.3%가 꼽아 가장 많았고, 다음으로 ‘수도권 외 지역에 대폭적인 세제감면’ 21.1%, ‘지방인재 육성’ 20.4%, ‘지역 R&D지원 확대’ 18.8%, ‘초광역경제권 구축 지원’ 7.6%, ‘수도권 규제 강화’ 3.9% 순으로 답했음.

실제로 그간 정부가 추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필요도와 만족도 간의 괴리가 가장 컸던 부문이 ‘지역전략산업 육성’과 ‘지방 기업 이전 및 리쇼어링’이었음.

○ 전 기업군에서 ‘지역전략산업 육성’을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꼽은 가운데, 다음으로 대·중견기업은 ‘지방인재 육성’(23.2%), ‘수도권 외 지역에 대폭적인 세제감면’(18.2%), ‘지역 R&D지원 확대’(17.2%) 순으로 나타났고, 중소기업의 경우 ‘수도권 외 지역에 대폭적인 세제감면’(22.4%), ‘지역 R&D지원 확대’(19.5%), ‘지방인재 육성’(19.0%) 순으로 답했음.

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중점으로 두어야할 사항

(n=12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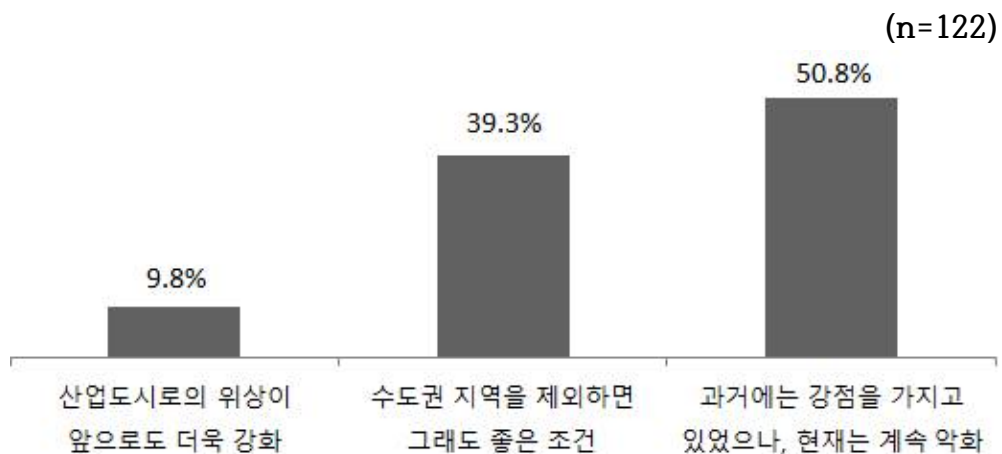


IV

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창원지역기업 인식

- 기업 운영의 측면에서 창원시가 타도시와 비교해 산업도시로서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업체의 절반 이상이 ‘과거에는 강점을 가지고 있었으나, 현재는 계속해서 악화하고 있다’(50.8%)고 답했음. 39.3%는 ‘수도권 지역을 제외하면 그래도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’고 답했고, 9.8%만이 ‘산업도시로의 위상이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다’고 답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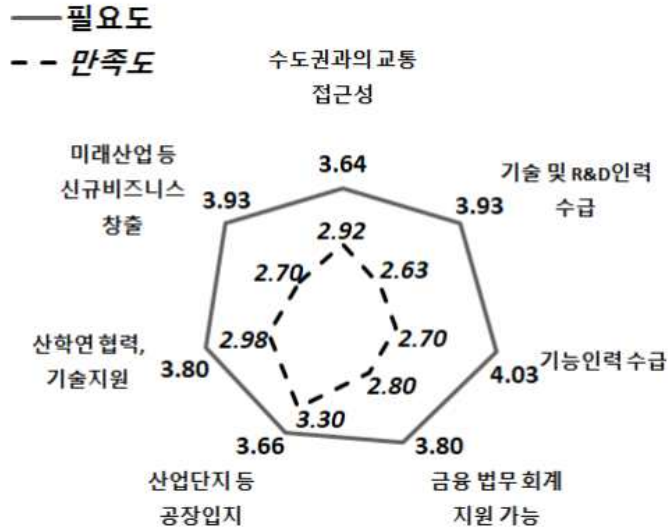
타도시와 비교한 창원 산업여건 평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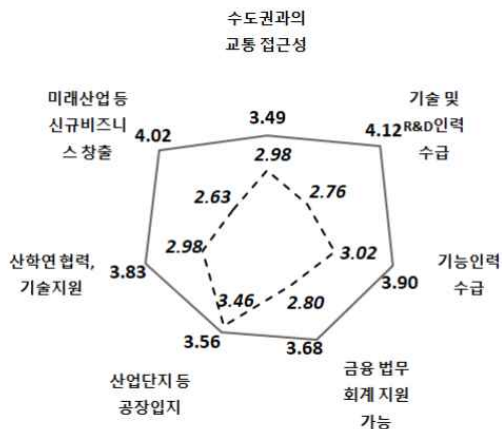
- 세부적으로 ‘수도권과의 교통 접근성’, ‘기술 및 R&D인력 수급’, ‘기능인력 수급’, ‘금융·법무·회계 지원 기능’, ‘산업단지 등 공장입지’, ‘산학연 협력, 기술지원’, ‘미래산업 등 신규비즈니스 창출’ 등의 기업활동 여건별 필요도와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, ‘산업단지 등 공장입지’부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여건의 만족도가 기준치(3.0)를 밑돌았음.
- 필요도의 평균(n=122, 5점 만점)은 ‘기능인력 수급’(4.03), ‘기술 및 R&D 인력 수급’(3.93), ‘미래산업 등 신규비즈니스 창출’(3.93), ‘산·학·연 협력 및 기술지원’(3.80), ‘금융·법무·회계 지원 기능’(3.80), ‘산업단지 등 공장 입지’(3.66), ‘수도권과의 교통 접근성’(3.64)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.

창원지역 산업여건 조성의 필요도와 만족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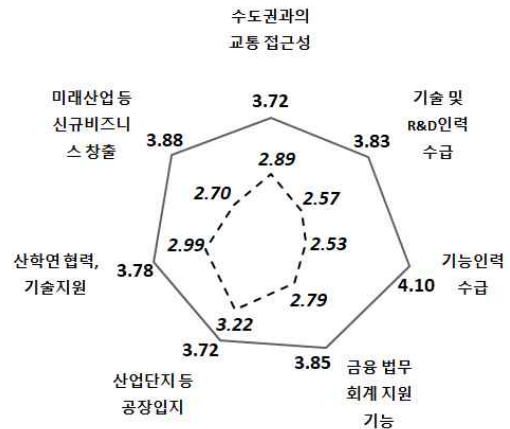
(n=122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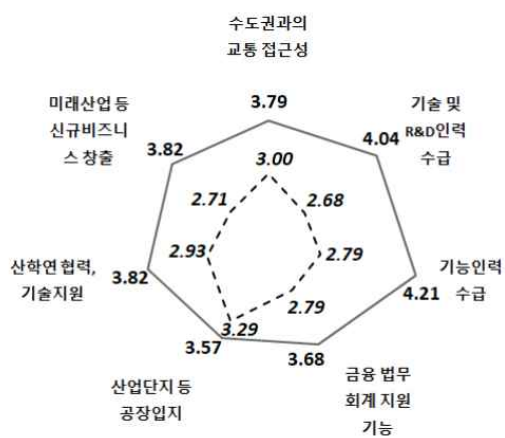
<대·중견기업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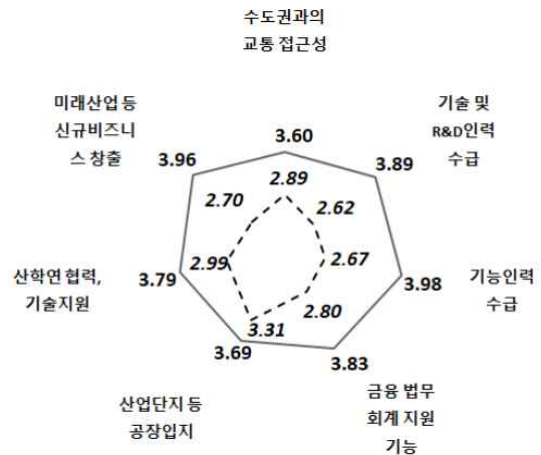
<중소기업>



<수출위주기업>



<내수위주기업>



○ 만족도에 있어서는 ‘산업단지 등 공장입지’(3.30), ‘산·학·연 협력 및 기술지원’(2.98), ‘수도권과의 교통 접근성’(2.92), ‘금융·법무·회계 지원 기능’(2.80), ‘미래산업 등 신규비즈니스 창출’(2.70), ‘기능인력 수급’(2.70), ‘기술 및 R&D인력 수급’(2.63) 순으로 나타났음.

필요도와 만족도 간의 차이를 보면, ‘기능인력 수급’(1.34), ‘기술 및 R&D인력 수급’(1.30), ‘미래산업 등 신규비즈니스 창출’(1.22), ‘금융·법무·회계 지원 기능’(1.00) 부문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음.

○ 필요도에 있어 대·중견기업은 ‘기술 및 R&D인력 수급’ 부문이 상대적으로 높았고, 중소기업은 ‘기능인력 수급’ 부문에서 높게 나타났으나, 만족도에 있어서는 모두 낮은 수준을 보였음. 대체로 필요도에 있어서는 모든 기업군에서 전 부문 기준치(3.0)를 크게 웃돌았으나, 만족도 부문에 있어서는 ‘산업단지 등 공장입지’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전 부문에서 기준치를 하회했음.

○ 최근 창원산업과 관련해 이루어지고 있는 인프라 구축 사업에 있어 가장 기대되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. 응답업체의 31.8%가 ‘창원산단 구조고도화’를 꼽아 가장 많았음. 다음으로 ‘부·울·경 산업인프라 공유’ 26.5%, ‘수소에너지 산업 육성’ 14.3%, ‘국제물류도시 구축’ 10.6%, ‘신공항 건설’ 9.0%, ‘진해신항 건설’ 7.8% 순으로 답했음.

산업인프라 구축사업 중 기대되는 사업

(n=122)

